중생이 보살을 찾아가는 시간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전시품 교체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 주제로 회화 등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월 22일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품을 교체했다.

우리나라 불교회화의 흐름과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화를 전시하고 있는 불교회화실의 이번 전시는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을 주제로 불교회화와 경전, 조각 등을 선보인다.

보살은 불교에서만 사용된 독자적인 개념으로,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등에서도 보살이라는 용어가 보이지만 보살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그 내용이 풍성해진 것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의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自利),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자(利他)'이다. 관음, 지장, 문수, 보현 등 여러 보살 대부분은 이미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미래불인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세상에 머물며 중생구제에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음보살은 보타락산에 머물면서 고난에 빠지거나 소망이 있는 중생이 그 명호를 부르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소리를 들어 고난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한다.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대중의 신앙이었던 보살로, 대중은 비단이나 종이뿐만 아니라 거울에도 관음보살의 모습을 새겼다. 이번 전시에서 영상과 함께 전시되는 '관음보살을 새긴 거울(고려 동제)'은 작지만 관음신앙의 핵심을 보여준다. 이 거울에는 쏟아지는 비를 만나거나, 험상궂은 도적을 만나는 장면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음보살이 담겨져 있다. 마음으로 관음보살의 존귀한 형상을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 마침내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에 관음보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상을 통해 거울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 조선 1730, 보물 1204호


'관세음보살을 새긴 거울', 고려, 동제

또한 관음보살과 관련된 보물 2점도 함께 전시된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보물 제1204호)'은 18세기 대표 화승 중 하나인 의겸이 그린 불화로 고난에서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관음보살과 보살이 사는 정토를 그리고 있다.

푸른 쪽빛에 찬란한 금빛으로 관음보살과 재난 구제 장면이 그려진 '법화경 변상도(보물 제269-4호)'는 조선 초기 사경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관음보살이 중생을 현실의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보살이라면,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로 서원한 보살이다. 1673년 그려진 '지장보살과 시왕'은 드물게 남아있는 17세기 불화로, 보존처리를 거쳐 선보인다. 승려 모습을 한 지장보살, 그를 따르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지옥을 다스리는 열 명의 왕과 동자를 그리고 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서의 중생구원을 서원하게 된 연유가 담긴 '지장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도 함께 전시된다.


'지장보살과 시왕', 조선 1673

이번 전시에는 지옥과 관련된 회화와 목조공예품도 함께 전시된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죽은 뒤 3일째 되는 날부터 진광대왕을 시작으로 마지막 왕인 오도전륜대왕까지 생전에 지은 죄업에 따라 10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과 각 왕이 다스리는 지옥이 그려진 '시왕도'를 소개한다. '시왕도'에서 중생을 위해 지옥문 밖에 다다른 지장보살을 만날 수 있다. 죽은 자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자', 다섯 번째 왕인 염라대왕의 심판에서 만나게 되는 '죄를 비추는 거울' 같은 불교공예품은 지옥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밖에도 섬세한 금빛용으로 장식된 법의를 입고 여덟 보살에게 둘러싸인 '극락정토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 관음보살에게 기원하여 받는 점괘 내용을 정리한 '관음보살에게 점괘를 받는 점술서'를 비롯해 두 보살과 관련된 22점이 전시된다. 현세와 내세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정기적인 전시품 교체를 통해 소장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불교회화실의 '주제가 있는 전시'는 불교회화와 새롭게 만나는 장으로, 이번 전시는 중생이 보살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02)2077-9000.

L·M·B싱어즈 찬불가 6집 '법회 의식곡' 출반



창작과 공연을 통해 찬불가를 전파해 온 엘엠비싱어즈가 6번째 앨범<사진>인 '법회 의식곡'을 발표했다.

이번 '법회 의식곡' 음반에는 그동안 한국불교의 의식곡들을 법회 현장(사찰, 포교당, 군법당, 교도소, 경찰서 관공서 등)의 쓰임에 맞게 정리했으며, 엘엠비싱어즈의 창작 찬불가를 덧붙여 불보살 찬탄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그동안 법회가 진행되는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의식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회 주체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부르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문 합창단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회 진행 순서대로 음악을 구성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법회 의식곡' 음반 하나만 있어도 모든 법회를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총 23곡이 수록된 '법회 의식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법회 의식곡'이다. 한국불교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의식곡 가운데 법회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 '부처님께 바칩니다'를 따라 부르기 좋도록 새롭게 편곡했다. 그리고 엘엠비싱어즈의 창작 찬불가 가운데 수작으로 꼽히는 '마음의 소리', '부처님 마음일세', '부처님 법 안에서' 등 3곡을 함께 수록해 감상용 음반의 의미를 더했다.

두 번째는 '사회 멘트가 있는 의식곡'이다. 법회 때 개회 멘트에서부터 삼귀의, 보현행원, 발원문,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 그리고 폐회 멘트에 이르기까지 법회 순서에 맞게 의식곡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어느 장소에서나 이 음반 하나만 있으면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합창단이 없는 소규모 사찰이나 군부대, 일반 법회, 관공서 등에서 그 쓰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피아노 반주(MR)'다. 쓰임이 많은 법회 의식곡,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 '부처님께 바칩니다'의 반주음악(MR)을 수록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엘엠비싱어즈는 그동안 한국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 의미를 되살려 올해 엘엠비싱어즈는 찬불가 창작과 함께 크고 작은 공연을 펼친다. 특히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아우르는 엘엠비싱어즈만의 특별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대한 불교음악인을 조명하는 'Buddhist Hymn Maestro'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상원사 고양이상 캐릭터 이름 공모

접수마감 2월 22일까지
발표 3월 3일 월정사 홈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대산 상원사 경내 고양이상의 캐릭터 이름을 공모한다. 문수전 계단 옆에 세워진 고양이상은 세조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를 형상화 한 것으로 전해온다. 상원사를 찾은 세조가 불전에 들어가려고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가 세조의 옷자락을 물어 끌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고양이의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되자 세조는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느껴 불전을 수색케 했고, 불단 밑에 숨어있던 자객이 발각됐다. 세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기리기 위해 고양이상을 세웠다고 한다.

공모는 2월 22일까지이며, 월정사의 공모 양식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yeshyun74@gmail.com) 로 접수한다. 당선작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3월 3일 월정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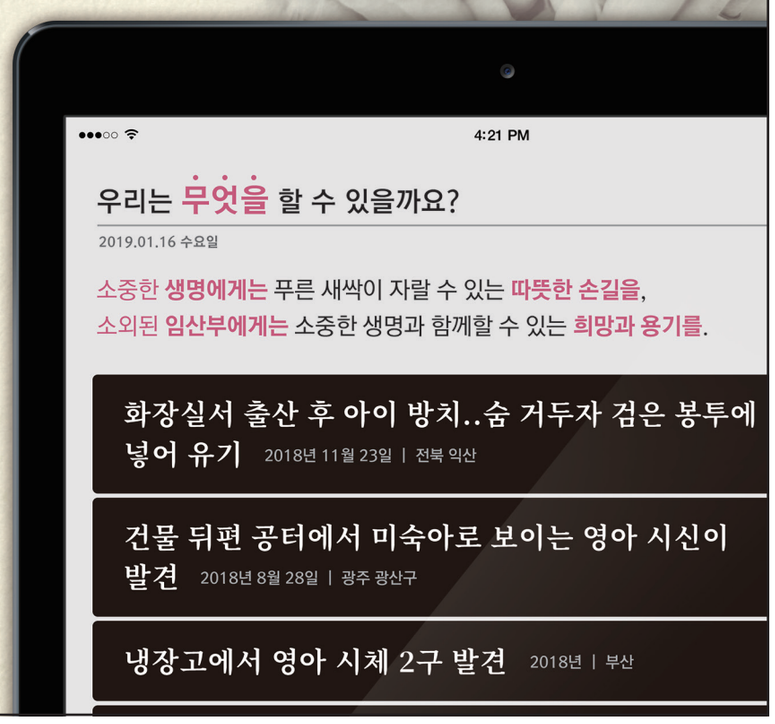

상원사 고양이상.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1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2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3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